

# 영문학술지 투고전략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이 덕 희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라야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영문학술지 투고를 위한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문학술지 투고전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창성있는 좋은 연구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당성있게 잘 설계된 연구는 쉽게 영문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연구는 실리기가 힘든 것이다. 즉, 전략을 짜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백배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논문을 쓰기 전에 또는 논문작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 질문 1: 나는 이 논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 질문 2: 이 논문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 질문 3: 쓰려고 하는 논문은 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가?
- 질문 4: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형식은 무엇인가?
- 질문 5: 이 논문의 독자는 누구인가?
- 질문 6: 논문 발표에 적합한 잡지는 어느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다면, 논문출판에 경험이 많은 동료, 선배한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많은 저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인간이 가진 정상적인 약점에 빠지기 쉬워 잡지에 실릴 것 같지 않은 논문을 쓰게 된다.

## 1. 참고문헌 찾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주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연구의 범위, 전문가의 도움(lab work) 여부 등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참고문헌을 읽는다. PubMed에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참고문헌들을 Reference Manager 혹은 Endnote에 저장을 해 놓으면 본문을 작성하면서 참고문헌을 인용하기가 쉽고 투고할 학술지에 따른 참고문헌 인용방법대로 인용하기가 쉽다.

## 2. 논문작성의 준비과정

저자를 결정한다. 보통 저자의 선정은 초고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며 저자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여야 한다. 저자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불쾌한 결과를 가져오고 학술적 활동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 (1)저자는 논문의 지적인 내용의 산출에 최소한 한 부분이라도 관여했어야 한다
- (2)저자는 논문의 작성, 수정을 위한 검토, 혹은 지적인 내용의 수정에 관여했어야 한다.
- (3)저자는 논문의 모든 지적인 내용에 대하여 학회내에서 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3. 연구논문의 구조

<i>Sequence of the research</i>	<i>Format and Content</i>	<i>Elements of critical argument</i>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ntroduction	The problem(question)
How the answer was sought Findings	Material and Methods	Credibility of evidence
Findings	Result	Evidence (the data); initial answer
Findings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findings of other investigators; the answer	Discussion and Conclusion	Supporting evidence (other papers), contradictory evidence (other papers), Assessment of conflicting evidence, Answer

## 4. 초고쓰기

### 1) 제목정하기

연구논문의 제목이란 초록을 가장 압축시켜 놓은 것이어야 한다. 한편 초록은 본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압축된 것이어야 한다. 제목은 초록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가는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논문의 제목을 먼저 정하도록 한다. 물론 이 제목은 본문을 revise하면서 바꿀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 subtitle을 줄 수도 있다.

## 2) 초록

논문의 서론, 연구방법 및 대상, 결과, 고찰 및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최소한 1문장 이상으로 표현되게 한다. 과거에는 한 문단으로 된 초록을 원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잡지들이 structured abstract를 원하고 있다. 한번에 쓰기보다는 본문을 작성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revise하게 된다.

## 3) 본문쓰기

본문을 쓰기 시작할 때 참고문헌 인용방법을 잘 알고 작성하여야 한다. First draft를 투고하여 accept되는 연구자도 있지만 대부분 연구자들은 4,5번 고쳐 쓰게 되며, 심지어는 10번 revise한다는 연구자도 있다.

## 영문 학술지 투고

### 1. 적절한 잡지 선정

본인이 작성한 원고내용에 적절한 잡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잘 찾는 방법중 하나로 “Instructions for Authors”를 읽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중요 잡지는 internet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잡지의 목표, 투고받는 원고의 종류, 해당잡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기술, 원고 작성 기준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 2.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원고가 작성되면 투고하기 전에 한번 더 다른 연구자들에게 읽어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의 feedback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한다. 작성된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editor-in-chief에게 본인이 투고할 원고가 해당 학술지에 적절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3. 편집자의 일을 덜어주라.

편집자들은 매일 수십개의 원고를 읽어야 한다. 대부분 유명 학술지들의 투고규정을 보면 “Manuscript improperly prepared will be turned to the author without review”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잘 준비하여 작성된 원고가 아니면 in-house-editor

들에 의하여 논문의 심사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논문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원고를 투고규정에 열거된 사항 한개, 한개와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후에 공저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읽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작성된 원고의 길이가 적절한지(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잡지인 경우와 참고문헌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원고와 그림의 복사본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Cover letter

Cover letter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잘 쓰면 편집자의 주의를 끌어나는 데 매우 유용하다. Cover letter에는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왜 이 원고가 이 잡지에 출판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언급한다. 먼저 투고하는 원고의 종류를 기술하고 주요결과와 결과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논문심사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연구자들의 이름과 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연구자들의 이름을 적는다.

#### 5. 편집자의 결정

접수된 원고는 먼저 그 학술지의 in-house editors가 읽어보고 peer review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 시기에 반려되기도 한다. Lancet의 경우 이 시기에 접수된 원고의 10%미만이 review process로 가게 된다. 원고가 반려되었다고 너무 실망할 것은 아니다. 본인의 원고가 투고한 학술지에 적절하지 않았거나, 투고된 원고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출판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투고한 원고가 심사를 받도록 정해지면 reviewer들에게 보내진다.

#### 6. Reviewer's comments

Reviewer의 심사결과와 editor의 의견에 따라 editor는 그대로 실을 것인지, 수정 후 실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Reviewer의 comment들 앞에 editor의 편지가 첨부되는데, 이 편지에서 이러한 결정사항을 연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간혹 editor가 거부하더라도, reviewer의 심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editor에게 이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서 재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수정 후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내용으로 편지가 왔을 경우에는 모든 reviewer의 comment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답변을 달고, 이에 적절하게 논문을 수정한다. 이때 반드시 reviewer의 comment에 다 따를 필요는 없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본인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reviewer한테 반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술

지는 deadline을 정하고 저자들의 의견을 보내달라고 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수정된 원고와 reviewer's comments에 대한 답변을 resubmission을 하도록 한다. 수정된 원고의 내용은 highlight로 표시하여 한 부를 더 첨부하는 것이 좋다.

## 7. 교정

수정된 원고를 보낸 후 채택이 되면 채택이 되었다는 편지가 오고, 인쇄본을 작성하여 교정을 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PDF file로 교정을 하기도 하며, 대개 그 때 교정 원칙을 첨부하여 보내주므로, 그 원칙에 따라 교정을 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보내도록 한다. 교정에 대한 작업원칙과 함께 offprint order form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안내문이 오기도 하므로 이를 잘 읽어보고 작성하여 최종 수정본과 함께 같이 보내면 된다.